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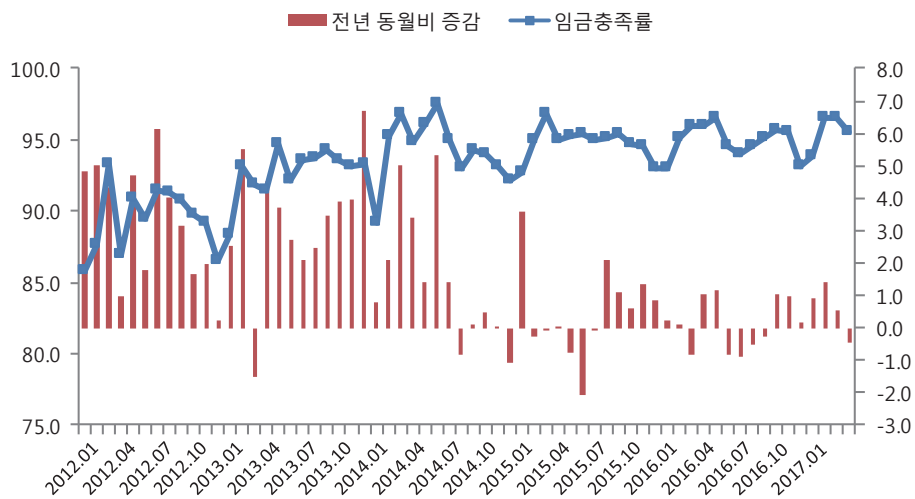
워크넷 구인구직DB를 이용한 3~4월 임금 동향

박세정(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)

- 2017년 4월 신규구인인원은 228천 명, 신규구직건수는 394천 건, 평균 제시임금은 179.4만 원, 평균 희망임금은 187.8만 원으로 전체 임금충족률은 95.5%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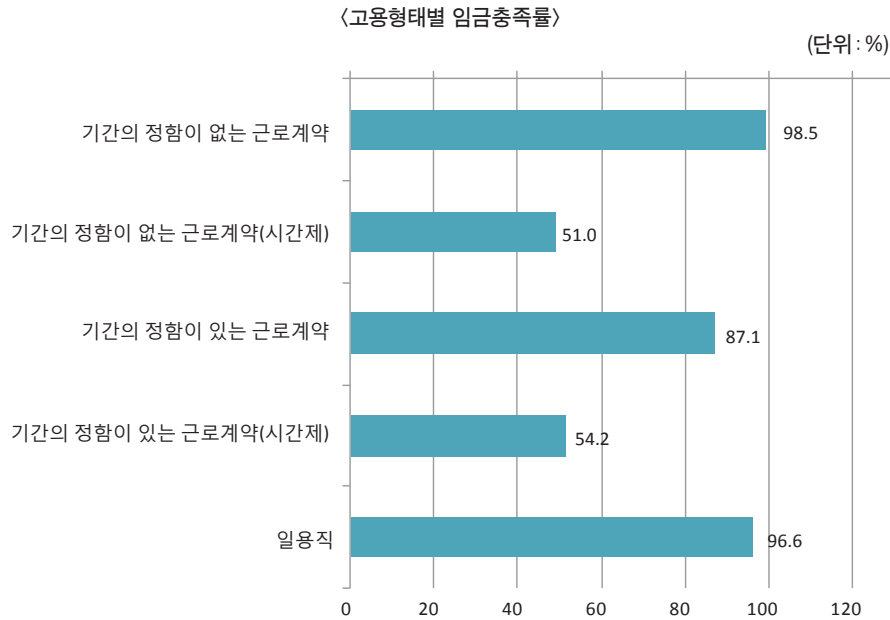
〈임금충족률 추이〉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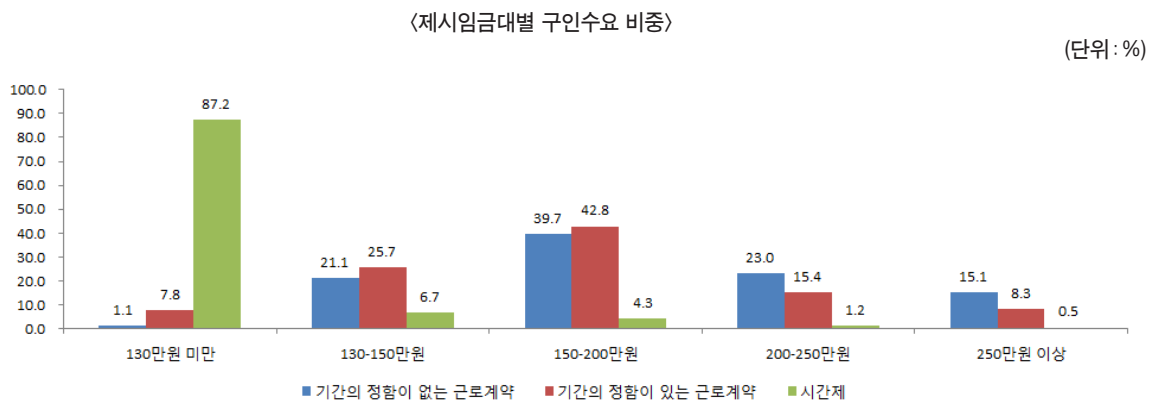
주 : 1) 임금충족률=(평균 제시임금/평균 희망임금)×100
 2) 임금에서 '분류불능'(응답자오류) 및 특이값 제외
 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워크넷 구인구직DB

- 고용형태별 임금충족률은 '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' 형태에서 98.5%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, '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(시간제)' 형태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. 시간제 근로형태의 낮은 임금충족률은 4월 시간제 근로형태에 대한 기업체의 낮은 제시임금에 기인



주 : 1) 임금충족률=(평균 제시임금/평균 희망임금)×100
 2) 임금에서 '분류불능'(응답자오류) 및 특이값 제외
 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워크넷 구인구직DB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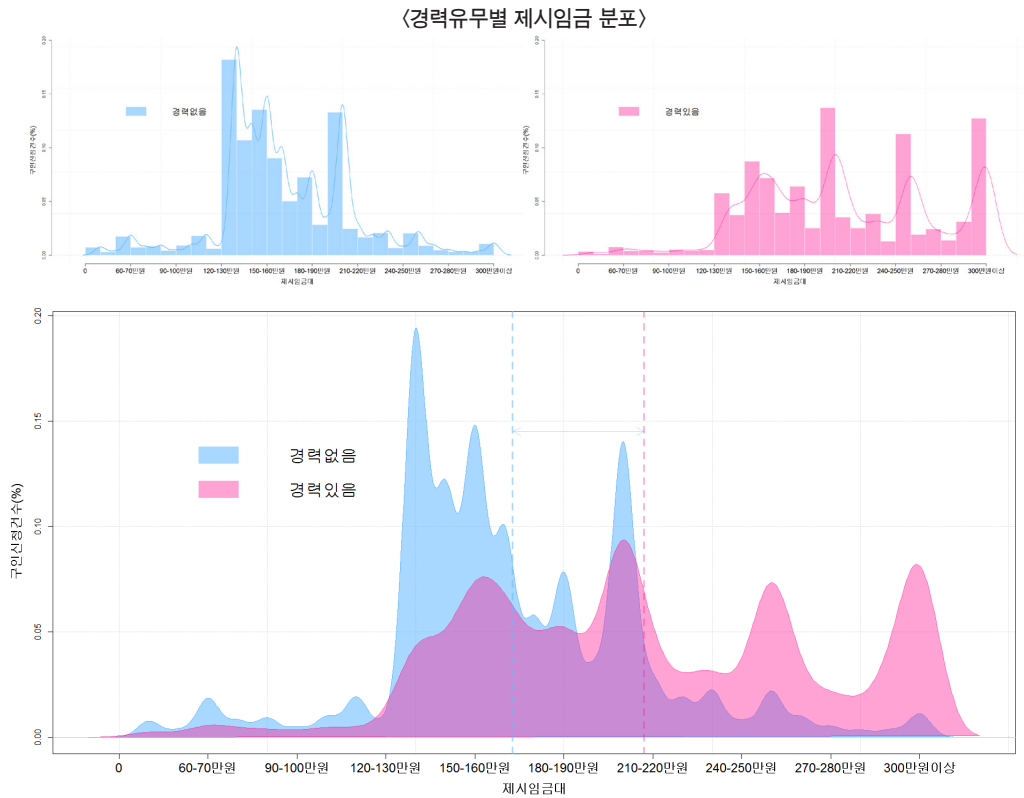
- 4월 고용형태별 제시임금대 비중을 보면, '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' 형태의 경우 130~150만원과 200~250만원 구간의 구인수요 비중이 비슷한 반면, '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'의 경우 130~150만원의 낮은 임금대에서 구인수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
 - 대부분의 구인업체에서 시간제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130만원 미만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고 있음



주 : 1) 임금대별 구인신청건수의 비중임
 2) 제시'월'임금임
 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워크넷 구인구직DB

2017년 3월 기준 속성별 제시임금, 희망임금 분포 비교

- 임금대별 구인신청건수 비율을 통해 본 제시임금 분포는 경력유무별로 다소 차이를 보임
 - 신규직에 대해 기업이 제시하는 임금은 주로 120~180만 원대 등 200만 원 미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, 경력직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임금대에 다수 분포
 - 그림의 실선으로 나타낸 분포 평균을 보면 신규직에 대한 제시임금 분포 평균은 160~170만 원, 경력직에 대한 제시임금 분포 평균은 210만 원 이상에 위치



주 : 1) 2017년 3월 기준 데이터임
 2) 희망·월·임금임
 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워크넷 구인구직DB

- 임금대별 구직건수 비율을 통해 본 희망임금 분포는 경력유무별로 차이를 보임
 - 유경력자의 경우 250만 원 이상의 희망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가운데 신규구직자의 희망임금 분포 평균은 160~170만 원대 수준, 경력구직자의 희망임금 분포 평균은 190~200만 원대 수준으로 나타남

〈경력유무별 희망임금 분포〉



주 : 1) 2017년 3월 기준 데이터임
 2) 희망·월·임금임
 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워크넷 구인구직DB